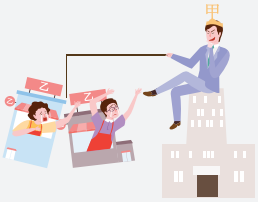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은 왜 싸우고 있나요?



동서울터미널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서울터미널은 1990년 개장 당시 매립지로 쓰레기 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한진이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막대한 권리금(1억원 상당,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과 동일)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지금의 동서울터미널이 되기까지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힘과 함께 누구나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공간과 쉼터를 30년동안 일궈온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임대계약? NO! 비정규직과 똑같은 신세, 1년 단기계약

상인들은 입주 당시 권리금을 내면 장기임대 권한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1년 단기계약을 진행했으며, 혹여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봐 한진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는 한진의 요구에 돈 한푼 지원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다가 2018년말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재계약 신청 자격조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 한진의 변호사가 상인들 몰래 조서 작성

재개발 통보는 보상안이나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요구 없이 원상회복하고 나간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동의하는 자들에게만 19년 계약을 하겠다는 말에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인감도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1]에 상인 측 대리로 명시된 변호사는 상인들과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었으며, 한진으로 부터 수임료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진에 고용된 변호사가 상인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갑질의 대명사 한진, 그리고 그 뒤에 쓱- 숨어있는 신세계 프라퍼티

문제는 한진만이 아닙니다. 상인 강제퇴거의 시작점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은 신세계가 최대주주이며 한진과 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각할 때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내건 조건이 상업시설의 퇴거, 즉 지금 임차인(상인들)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이에 강제퇴거를 한진에서 일임하고 있을 뿐 최종 책임은 신세계 프라퍼티에게 있습니다. 프라퍼티는 한진 뒤에 숨어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해결의 입장에 서야합니다.



천만 시민의 동서울터미널, 대기업 갑질로부터 함께 지켜주세요.

동서울터미널은 사유지이지만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부지로,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립지에서 서울시와 타 지역을 잇는 거대한 교통의 메카로 자리잡기까지 이를 함께 만들고 일궈왔던 상인들을, 심지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익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상가들이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당했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만 내준다면 상인들은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한진, 신세계 등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피해 받는 시민들이 늘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가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생이 있는 재건축안을 제시하여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삶의 터전을 보장하도록 시민들이 함께 공론화하고 동서울터미널 상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제소전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조서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작성해야 합니다.

상생 재건축을 위해 동서울상인들과 함께해주세요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상생 재건축을 위한 활동 과정

2019.10.25. 한진중공업이 임차상인에 내용증명 발송 - 불법 화해조서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 불가 및 퇴거 통보
2019.10.31.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상생 재건축 촉구 기자회견 및 상생협의 요구 1인시위 시작
2019.12.23. 서울시장 면담 - 동서울터미널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상생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련 부서에 상생방안 지시
2020.01.13. 임대회사 한진중공업 본사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 - 한진중공업의 총부무장을 면담하고 임차상인과 상생 재건축 협의 요청
2020.01.15. 소유주 산업은행 본사 항의집회 및 면담 - 산업은행의 담당자를 면담하고 임차상인과 상생 재건축 협의 요청
2020.02.07. 광진구청 윤종장 부구청장 면담 - 이후 광진구청에서 상생 대책을 반영하라는 자치구 의견서를 서울시청에 공문 발송
2020.02.20. 서울시청이 한진중공업에 공문발송 및 전화통화 - 한진중공업에 협력적 대안 검토하고 상생재건축 진행하라는 공문발송
임차인과 협의 없으면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의 재건축 사전협의 절차는 진행할수 없음을 한진중공업 총무과 담당자에 통보
2020.06.18. 동부지방법원 성창호 판사 판결 - 불법 화해조서 인정 판결, 강제집행 개시 결정판결
2020.06.20. 불법 화해조서 인정 규탄 및 강제집행 정지 촉구 기자회견
2020.07.01.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제집행 예고
2020.07.10. 동부지방법원 항소 법정(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2020.12.11. 한진중공업 변호사 고등법원 증인출석 -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임차상인과 단 한번도 전화나 상의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회사의 지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한진중공업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하였다고 진실을 고백함
2021.02.05. 동부지방법원 항소법정(2심) 판결 - 임차상인 상생재건축 요구 기각 및 강제집행 명령
2021.02.10. 0시 불법 야간 강제집행 - 1차 불법 야간 강제집행으로 임차상인 10명 강제집행
2021.02.11. 불법 야간 강제집행 반대 집회 및 1인시위 시작
2021.02.21. 대법원 상고 - 2020년 12월 11일 법원 증언대에서 진술한 변호사의 자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함
2021.03.03. 02시 불법 야간 강제집행 - 2차 야간 강제집행으로 임차상인 5명 강제집행
2021.03.25. 매일시위 시작 - 강제집행 규탄 집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야간 강제집행은 불법!

아직 판결문도 받지 않았고, 법원의 강제집행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가게 뿐만 아니라 터미널 통로까지 모두 막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고지도 없이 용역과 집행관 수백명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불법 화해조서도 인정?

한진중공업 변호사가 한진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상인들과 단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이 회사의 지시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는 증언을 했음에도 불법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불법에 눈을 감고 대기업 갑질에 힘을 실어줄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서울시의 인허가가 핵심!

대다수 상가가 불법 강제철거로 쫓겨난 상황에 마지막 남은 공은 서울시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대로 재건축 인허가를 한다면 상인들은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대기업 갑질에 시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상생있는 재건축안을 제시하고 한진과 신세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변 지인들, SNS등의 전파를 통해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을 지켜주세요

#동서울터미널재건축 #동서울터미널강제퇴거반대 #동서울터미널명도소송 #한진 #신세계 #대기업갑질그만!